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이 7월 14일부터 약 2주간 교육연구관에서 진행됐다. 올해 대상자는 총 6,806명이다. 야간작업 및 유해물인자 취급 직원들은 추가 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검진을, 만 40세 이상 직원들은 종양표지자검사 등을 추가로 받았다. 사진은 7월 22일 직원들이 채혈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소속 :
전화번호 :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난호 정답

제752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 따뜻한 마음 한 스푼'**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진료지원팀 라선영 대리가 추첨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5년 8월 15일(금)
발표 제756호(2025년 9월 1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김성아(중환자간호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김은경(외래간호팀)
김효정(암병원간호2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박은정(병리팀)
임선이(중앙공급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김미영(의료정보관리팀)
박정은(중앙공급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김아름(암병원간호1팀)
박숙미(어린이병원간호팀)
윤경아(진단검사의학팀)
장진기(대장항문외과)
장혜원(혈관외과)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54 2025. 8. 1

노년 환자 입원부터 퇴원 후까지… '위드원'

우리 병원은 중증 노년 환자에게 입원부터 퇴원 후까지 진료,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위드원(WithON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흐름에 발맞춰 노년 환자의 맞춤형 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위드원은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약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With) 환자 한 명 한 명에게(ONE)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는 뜻의 합성어로 ▲65세 이상 노년 입원환자 중 고위험군 조기 선별 ▲입원 중 다학제 팀 기반 맞춤형 진료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다. 우리 병원은 국내 최초로 노년 친화적 통합 진료 체계인 위드원을 구축해 최근 상표 출원까지 마쳤다. 사진은 노년내과 백지연 조교수(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위드원' 다학제 의료진이 임상 허약 척도(CFS)를 측정하기 위해 중증 노년 입원환자의 근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면)

03 NEWS 면역조절 나노입자로 천식 치료
08 AMC IN(人)sight 유방외과 유태경 조교수
12 여름특집 아산인의 여름 핫플 지도
17 마음건강노트 'K-장녀' 뒤에 숨겨진 이야기

서울아산병원 뉴스룸
병원 소식을 한눈에

1995년 5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다 06386 **발행인** 박승일 **편집인** 노영진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Tel** 1688-7575 **홍보팀** **Tel** 02-3010-3046 **디자인인쇄** 큐라인

국내 최초 노년 친화적 통합 진료 체계 구축

노년내과 백지연 조교수(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위드원' 다학제 의료진이 중증 노년 입원환자의 치료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중증 노년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노년 환자 특성을 고려한 통합 진료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 노년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 병원은 입원부터 퇴원 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진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위드원(WithONE)'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진은 임상 허약 척도(CFS)를 활용해 65세 이상의 노년 입원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시니어 환자관리(ACE)팀 협진이 자동으로 의뢰되고, 48시간 이내에 통합돌봄지원팀의 노년 전담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해 위험 및 악화 요인을 평가한다. 다학제 기반 환자 맞춤형 진료 계획이 수립되면 재활의학팀은 조기 재활 치료를 실시하고, 약제팀은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물 처방을 평가한다. 영양팀은 맞춤형 식이 계획을 제공한다.

위드원은 퇴원 후 치료 연속성 강화를 위해 지역 사회 기반의 '통합 퇴원계획(IDP)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담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퇴원 상담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해 거주지 맞춤 가정간호를 연계하고, 지역 복지 자원과 연결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문의 응대 시스템과 안심진료 클리닉도 구축했다.

ACE팀이 관리한 노년 환자 수는 2021년 160여 명에서 2024년 2,959명으로 18배 이상 증가했으며, 만족도는 9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통합 퇴원계획 서비스 의뢰 건수는 83건에서 802건으로 약 10배 늘었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실적도 191건에서 1,44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 비만율 증가세

황성욱 부교수

김민규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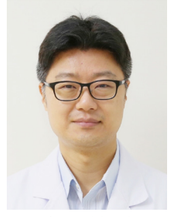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염증성 장질환의 예후를 나쁘게 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영향으로 아시아 국가 내 비만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비만율이 일반인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내과 황성욱 부교수, 김민규 조교수팀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병원을 방문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 1만 1,216명의 체질량지수(BMI)와 대사 관련 혈액 지표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평균 비만율이 2008년 13.1%에서 2021년 29.8%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인의 평균 비만율은 30.7%에서 37.1%로 약 1.2배 증가에 그쳤다. 성별에 따라 남성 비만율은 15.1%에서 37.7%, 여성 비만율은 9.2%에서 15%로 증가해 남성이 여성보다 약 4배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등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혈액 지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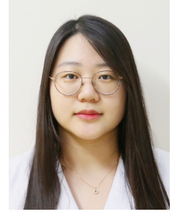
황성욱 부교수는 "그동안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비만율이 높은 백인종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동양인 환자의 염증성 장질환과 비만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소화기학 저널」 최신호에 게재됐다.

면역조절 나노입자로 천식 치료



진준오 부교수



안은경 박사

천식은 호흡곤란, 기침, 폐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염증 질환이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은 스테로이드와 같은 전신 면역억제제인데, 장기간 복용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거나 여러 장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미생물학교실 진준오 부교수, 안은경 박사팀이 특정 면역세포에만 반응하는 면역조절 나노입자로 천식을 완화하는 치료법을 최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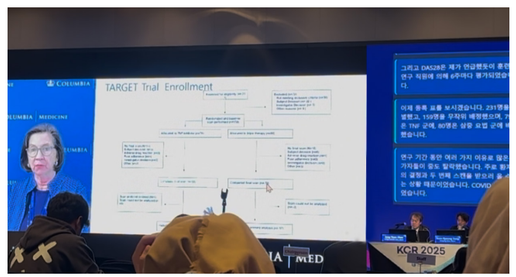
연구팀은 면역세포인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스테로이드 항염증제인 덱사메타손을 전달하는 하이브리드 나노입자를 개발했다.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를 조절해 과도한 면역반응을 낮추고 관용성(면역 무반응 상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면역조절 나노입자를 알레르기성 천식 생쥐에게 투여한 결과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에만 선택적으로 결합됐으며, 두 면역세포 모두 면역반응을 하지 않는 항염증성 형태로 분화된 모습이 관찰됐다. 이후 면역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조절 T세포 수가 증가했다.

연구팀은 천식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알레르기성 천식 생쥐에게 3일간 면역조절 나노입자를 투여했다. 그 결과 폐 염증세포 수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폐 조직 병리학 분석에서는 염증 억제와 폐 조직 정상화가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진준오 부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면역조절 나노입자는 특정 면역세포에 정밀 타깃이 가능해 기존 항염증제보다 전신 부작용이 적다. 스테로이드에 내성이 있거나 장기 복용이 어려운 만성 천식 환자들에게도 정밀 면역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해 차세대 천식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과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에이씨에스 나노」 최신호에 게재됐다.

국제학술대회 실시간 통번역 AI 프로그램 개발



AI 통번역 프로그램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사용되는 모습.

의학 등 전문 분야의 국제학술대회는 어려운 용어와 약어로 통역이 까다롭다. 일반적인 인공지능(AI) 번역 프로그램도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표자의 말이 끝나야 번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내용을 즉시 이해하기 힘들다.

류마티스내과 김용길·오지선 교수, 의생명연구소 심우현 부교수팀은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실시간으로 활용 가능한 AI 통번역 프로그램을 최근 개발했다. 의학, 법률 등 여러 전문 분야 용어가 학습된 이 프로그램은 음성 데이터의 전문 용어를 분석해 분야와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번역을 제공한다. 발표자가 말하는 내용은 단어마다 실시간으로 번역돼 1~3초 이내에 완전한 문장으로 화면에 보여주며, 참석자들은 자신의 모국어로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15일부터 3일간 개최된 대한류마티스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27개국 9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연구팀은 이번 개발에 사용한 ▲다중 언어 번역 장치 ▲실시간 음성 인식 데이터 및 번역 데이터 처리 장치 ▲멀티모달 정보를 활용한 분야 특화 번역 장치 및 기법에 대한 기술 특허를 최근 출원했다.

영양집중지원팀 심포지엄

영양집중지원팀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4회 영양집중지원팀(NST) 심포지엄이 7월 19일 동관 대강당과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소아와 성인의 영양요구량 산정의 이론과 실제 ▲성인 중환자, 뇌손상·간부전 환자의 영양지원 ▲이른둥이의 대사와 섭식 장애 ▲만성 호흡기질환 환자의 임상 상태별 영양지원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남궁정만 NST팀장(소아외과 부교수)은 "영양지원은 환자 치료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이번 심포지엄이 최상의 영양지원 전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젊은 유방암 심포지엄

젊은 유방암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 유방외과와 젊은 유방암 다학제 연구단(MYBC)이 주최하는 젊은 유방암 심포지엄이 7월 26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나의 유방암 이야기: 젊은 여성의 여정과 희망, 그리고 우리'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젊은 유방암 환우와 가족, 의료진 25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유방암의 종류별 치료법 ▲젊은 유방암 환자의 가임력 보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의료진, 보건복지부, 환우 패널이 함께 하는 가임력 보존 정책 현황 소개 세션, 유방암 환우 동호회의 활동 발표 등이 함께 이뤄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낙상 예방 세미나

낙상 예방 세미나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PI실이 주최하는 낙상 예방 세미나가 7월 28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낙상 예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낙상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낙상 예방 현황(PI팀) ▲낙상 예방을 위한 통합적 중재 전략(ACE팀) ▲부서별 낙상 예방 활동 공유(영상의학팀, 내과간호2팀) ▲낙상 관련 분쟁 사례 소개 및 대처 전략(법무팀) ▲낙상 개선 TF 진행 경과(간호교육행정팀, 진료지원팀, PI팀)를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태아치료센터 워크숍

태아치료센터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0회 태아치료센터 워크숍이 7월 13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태아심장질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심장과, 소아심장외과 등 관련 분야 의료진 26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태아 심장초음파 실시간 시연 ▲태아 대동맥궁 이상의 산전 진단부터 산후 확인 ▲대혈관전위증의 수술 전략 ▲산전·산후 연계 진료의 경험 공유 등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캐나다 토론토 어린이병원의 유시준 교수가 '태아 영상 진단부터 수술 계획 수립'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혜성 태아치료센터소장은 "이번 워크숍이 산전부터 산후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진료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돌봄 로봇 전시회

내원객들이 전시회에서 돌봄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돌봄 로봇 전시회가 7월 14일부터 5일간 동관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환자, 보호자가 돌봄 로봇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1,700여 명이 방문한 이번 전시회에는 돌봄 로봇 관련 업체 5곳이 참여해 ▲노인 환자 치매 예방 프로그램 ▲챗지피티 기반의 정서적 교감과 말벗 기능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이나 가족에 긴급 호출 기능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기능 등이 탑재된 다양한 돌봄 로봇을 소개했다.

암성 통증 캠페인

암환자와 보호자가 완화의료 담당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암성 통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이 7월 17일 서관 암교육정보센터에서 진행됐다. 우리 병원을 찾은 암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 담당 의사인 종양내과 서세영 부교수, 김성은 임상강사가 암성 통증 관리 방법, 마약성 진통제 사용,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에 대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우리 병원 암병원은 말기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완화의료클리닉(자문형 호스피스)을 운영하고 있다.

동정

최종우 교수 윌리엄 잠보니 상

성형외과 최종우 교수가 최근 미국미세재건학회(ASRM)에서 수여하는 윌리엄 잠보니 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 세계 미세재건성형외과 분야에서 임상, 연구, 교육 측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의사에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 최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1,500례가 넘는 얼굴재건성형과 두경부암 미세재건술을 시행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임상 및 연구 성과를 통해 미세재건수술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김장한 교수 저술상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장한 교수가 7월 6일 열린 제23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저술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저서 「의료산책 1: 광장으로 나온 의료」와 「의료산책 2: 의료를 둘러싼 이야기들」의 학술적, 의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공경엽 교수 우수논문상

병리과 공경엽 교수가 7월 3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51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공 교수는 '한국 HER-2 저발현 유방암에 대한 국내 다기관 연구: 2022년 데이터 기반 발생률 분석 및 면역조직화학염색 프로토콜 중요성 연구'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정의석 부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신생아과 정의석 부교수가 7월 11일 제14회 인구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부교수는 이른둥이,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 등 중증 신생아 치료에 헌신하며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김경훈 레지던트 수상

피부과 김경훈 레지던트가 7월 1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의료데이터중심병원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 김 레지던트는 '병동 피부질환 관리를 위한 임상 사진 기반 AI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강유진 유닛 매니저, 김준혁 사원 학회서 수상

강유진 유닛 매니저

김준혁 사원

약제팀 직원들이 최근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강유진 유닛 매니저는 병원 약제업무 개선과 병원약사 직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병원약사회장 표창을 받았고, 김준혁 사원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에서 티사젠렉루셀(킴리아주)의 임상적 성과: 단일 기관, 후향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포스터발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고난주	10,000,000원
고려아연(주)	100,000,000원
금석호	50,000,000원
박미희	100,000,000원
박지선	1,000,000원
배준호	100,000,000원
서순덕	100,000,000원
신동한	10,040,000원
에어테크엔지니어링(주)	100,000,000원
영진아이엔디(주)	100,000,000원
이담	50,000,000원
전옥현	5,000,000원
정원석	50,000,000원
최병인	10,000,000원
최수용	1,000,000원
황수진	10,000,000원
김지오	1,000,000원
박지혜	100,000원
이지연	1,000,000원
임재현	100,000원
장현종	1,000,000원
정원석	50,000,000원
(주)미래로물류서비스	2,000,000원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40,000,000원

불우환자 지원

Khegay Aleksandr Anatolevich	100,000원

- 2025년 7월 14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크론병 항문누공 치료에 새로운 약물 효과 확인

대장항문외과 김현경 임상강사

대장항문외과 김현경 임상강사는 최근 열린 대한대장항문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크론병 항문누공 치료제로서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PDRN)의 잠재적 가능성 평가'라는 주제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크론병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대표적 합병증인 항문 주위 누공에 조직 재생과 항염 효과가 있는 PDRN이 잠재적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Q. 연구의 배경은? 크론병에 의한 항문누공은 재발률이 높고 완전한 치유가 어려운 질환으로, 치료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어져 왔다. 최근까지 항문누공 수술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된 자가 지방 유래 줄기세포(ASCs)를 이용한 국소 주입 치료를 시행해 왔지만, 환자의 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줄기세포와 유사한 조직 재생 및 항염증 효과가 있으면서 비용도 저렴하며 안전성이 검증된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PDRN)를 크론병 항문누공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지 평가하고자 했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2018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우리 병원에서 크론병으로 항문누공 폐쇄술을 받은 환자 47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했다. 대상자는 수술 중 PDRN 국소 주사 치료를 받은 그룹 21명(PDRN군)과 주사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 26명(비PDRN군)으로 분류해 수술 후 누공 치유율과 완전 치유까지의 소요 기간 등을 비교했다.

치료 기간별 누공 치유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경과 시점에서는 PDRN군은 70%인 반면 비PDRN군은 26.9%로 나타났다. 12개월 후에도 PDRN군은 83.3%, 비PDRN군은 46.2%의 치유율을 보여 PDRN군에서 더 뚜렷한 호전이 확인됐다. 완전 치유까지 소요된 기간 역시 PDRN군은 3.3개월, 비PDRN군은 5.9개월로 치유율과 치료 기간 모두에서 PDRN군의 유의한 우위가 확인됐다. 다양한 변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는 다변량 분석에서도 PDRN 투여는 누공 완전 치유와 독립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크론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단일 기관의 항문누공 환자만으로는 충분한 증례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대규모 연구를 통해 PDRN의 치료 효과와 재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향적 연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현재 치료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입증된 줄기세포 치료법과의 비교 연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유방암 너머 삶의 질을 함께 바라 봐야죠”

유방외과 유태경 조교수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 암 1위로 신약 연구나 검사법 개발이 매우 활발한 분야다. 동시에 언제든 재발과 새로운 암의 가능성이 있어 완치를 말할 수 없는 질병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태경 조교수는 질병 너머 환자 삶의 질에 청진기를 댄다. 환자가 치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에 시간과 노력을 더하고, 병원 밖에서도 더 가까이 닿을 방법을 구한다. 때로 호방하게, 때로 유연하게. 그가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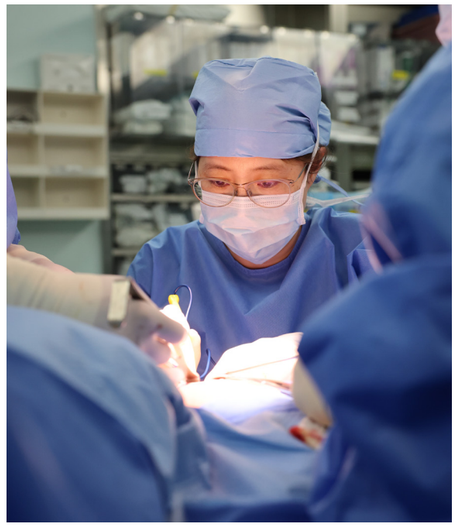
함께하며 채우고 채워지는 것들

“인턴 때 매일 잠 못 자고 집에도 가지 못하는 일정 속에서 어차피 힘든 일이라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수술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가득했죠.” 수술실에 서면 모든 잡념이 사라졌다. 손으로 하는 일에 흥미가 커졌고 수술 후 스태프들과 뒤섞여 나누는 대화는 윤활유가 됐다. 특히 유방 질환은 내과 파트 없이 유방외과에서 진단과 치료, 추적 관찰을 모두 진행한다는 점에 끌렸다. “유방암 치료는 수술을 기본으로 표적 치료와 항호르몬 치료가 이어져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관리에 무더지거나 완치로 오해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왜 이 약을 먹는지, 어떤 검사를 왜 받아야 하는지 꼭 알려드리려는 이유죠. 적당한 긴장감을 주면서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도록 이끄는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제가 워낙 환자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잔소리도 많아져요.”

치료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때로 환자를 괴롭히는 치료가 되기도 한다. 경험이 쌓일수록 치료 유연성에 대한 고민도 커진다. “진료 이력이 굉장한 교수님들의 경험을 참고해봐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유연성을 키워 나가죠. 원칙대로 하지 않았을 때 혹여 재발해서 환자의 원망을 들을까 두려움도 물론 있어요. 충분한 설명과 상의를 거쳐 치료 결정을 환자와 함께합니다. 진료가 지연되는 요인 중 하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죠.”

환자의 마음을 아는 것만으로

유방암 환자들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심한 열감이나 감정 기복, 우울감, 수면 부족 등을 겪는다.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삶의 질을 해치는 요소다. 그럼에도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외형적 변화가 적어 가족들의 지지는 갈수록 약해지고 환자는 혼자만의 심적 고통을 떠안게 된다. 유 교수는 환자를 꾸준히 격려하고 상황에 따라 약을 세심히 조절하며 기나긴 치료를 이끌어간다. “제가 우리 병원으로 옮기면서 저를 따라온 젊은 유방암 환자가 있어요. 힘든 치료를 오래 함께하면서 결혼과 임신 계획에 맞춰 치료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얼마 전 무사히 출산한 환자가 끊었던 호르몬약 처방을 받기 위해 자녀와 함께 진료실을 찾아 왔어요. 묵묵히 모든 치료를 잘 따라준 환자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그는 진료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에너지를 유지한 채 환자들과 만난다. 주변에서 그 비결을 물을 정도다. “제가 아버지의 진료를 따라간 적이 있는데 진료 내내 의사가 저를 보며 설명했어요. 아버지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궁금한 것이 많은데, 귀가 조금 어둡다는 이유로요. 어쩐지 아버지께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제 환자들에겐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한층 높여 또박또박 설명하려고 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보호자에게 다시 설명하게 되더라도요. 높아진 목소리톤 때문에 옆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와 언쟁이 생긴 걸로 오해한 적도 있었죠.(웃음)”

더 필요한 도움을 찾아서

유 조교수는 혈액 검사에서 암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혈액에서 순환 종양 DNA(circulation tumor DNA, ctDNA)가 발견되면 채혈 한 번의 비침습적인 검사로 암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은 검사 정확도를 증명하는 단계지만 재발 확인이 쉬워지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정밀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하버드대 다나파버암센터에서 1년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돌아왔다. 흩어져 있던 ctDNA에 대한 지식을 모으고 보강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 시간이었다.

유방 질환에 대한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평소 환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한다. 질병에 대해 환자들이 잘 알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많은 공부가 되고 있다. 환자뿐 아니라 다른 의료진이 유용하게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인사를 들을 때면 채널을 지속할 힘을 얻는다.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군가의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이 의사라는 직업의 장점일 거예요. 제겐 때로 과분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특별한 목표가 있다기보단 진료나 연구 무엇으로든 환자분들께 더욱 도움이 되고 싶어요.”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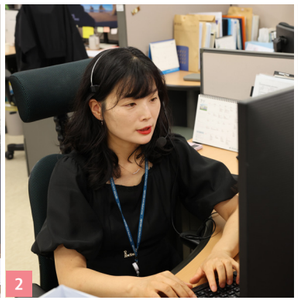
연구의 질을 높이는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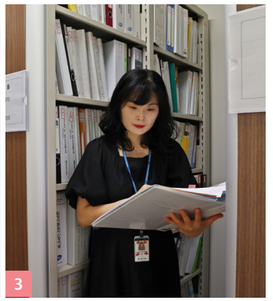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 병원에선 1,537건의 신규 과제와 599건의 결과 보고가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연구계획변경 1만 4,892건, 보완 사례 1,759건, 중대한 이상 사례 2,656건 등이 숨어있다. 이때 IRB는 단순히 승인과 반려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 때로 제동을 걸지만 대안도 제시하며 연구 과정 전체를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가 된다. 이를 위해 신규 과제에 대한 사전심의, 정례회의나 IRB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각종 설명문과 동의서 작성에 필요한 샘플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연구자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명확하거나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계속된다. 급한 과제나 환자 모집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IRB 위원장 직권으로 신속 절차를 가동해 유연한 운영을 돕는가 하면, 환자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히 대응한다. 항상 감사나 실사 대응을 염두에 두고 정례회의에 나온 발언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연구자와의 친화, 운영 현실 고려, 실사 대응력이라는 삼각 구도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IRB행정지원 유닛은 방대한 역할과 책임을 촘촘히 수행하고 있다.

"IRB는 연구를 멈추게 하는 부서가 아니라, 연구가 정당하고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돕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에서 근거를 갖춰 판단을 내리고 연구의 질을 한 단계 올리는 거죠. 책임감이 큰 만큼 자부심도, 보람도 크고 오래갑니다."

임상연구보호센터 유은옥 대리

연구 지원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연구자 문의에 대응할 일이 점차 늘면서 IRB 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 늘 변화하는 규정과 새로운 연구들 속에서 모든 게 애매하지만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IRB 행정직원으로서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관련 법령 교육을 이수하고 법령 해석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꼼꼼함, 논리력 등을 키워나갔다. "연구자를 돕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규정을 위반하면 IRB 전체의 책임이 될 수 있어서 법령과 실제 연구 현실을 맞춰보는 전문성과 판단력이 중요해요. 처음엔 '이게 맞을까?' 확신이 없는 데다, 바쁘고 직설적인 연구자와 소통하며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죠." 이제는 실수를 안 하는 것보다 책임지고 판단할 수 있는 실무자가 되는 데 초점을 맞춰간다. 연구자들도 연구 윤리에 대해 먼저 묻고 점검할 만큼 인식이 높아졌음을 자주 실감하고 있다.





1. 정례회의에서 마취통증의학과 박종연 교수(왼쪽 첫 번째)가 신규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유은옥 대리가 연구자의 전화 문의를 응대하는 모습.
3. 문서 창고에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연구자 요청, 각종 실사나 평가에 대비한다.

유은옥 대리가 출근하면 온갖 심의 신청서와 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 첨부 문서가 잔뜩 도착해 있다. "빠진 서류가 있나요?" "설명문을 수정했는데 괜찮을까요?" 각종 문의에 유 대리는 법령이나 기관 SOP를 확인해 답변한다.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해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복지 보호뿐 아니라 연구 진행에 따른 리스크나 기관 차원의 부담, 보험 적용 등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룬다. 챙기는 요소가 많을수록 연구자는 'IRB만 통과하면 연구가 진행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월 9회 IRB 정례회의가 있어요. 흐름은 빨라도 생소한 연구 용어 하나 놓치면 안되죠. 심의위원 간의 이견이 생기면 핵심 쟁점을 정리해서 합의가 도출되도록 보조하고요. 회의록을 바탕으로 심의 결과통지서 초안을 작성해 등록합니다. 한동안 회의 전날엔 긴장돼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연구자가 응급 상황에서의 생체 표본 채취 연구 계획을 제출했다. 문제는 연구 대상이 중환자이고 본인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호자도 곁에 없는 경우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가치와 최소 침습 채취 방법을 강조했지만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였다. 유 대리는 생명윤리법의 응급 상황 예외 조항, IRB 사전 승인 조건, 대상자 사후 동의 절차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찾아 조율했다. 위원회에서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타당한 조건을 덧붙여 승인했다. "IRB에서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줄도 몰랐을 거예요." 연구자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외래 환자 대상 연구에서 특정 고령 환자들의 동의서가 전부 대리인 이름으로 채워진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이를 놓치지 않고 해당 연구진에게 문의했죠. 대상자 본인이 읽기 어려워 대리인이 대신 써줬다는 거예요. 위원회에선 해당 연구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동의 절차를 다시 밟고 IRB의 재심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연구가 재개될 수 있었어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라는 제1원칙을 상기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냥 해주면 되는데 너무 까다롭네요." 동의서 수정을 요청 받은 연구자가 불만을 드러냈다.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유 대리는 정확한 기준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면 모든 연구자가 납득한다는 걸 오랜 경험에서 알고 있었다. 왜 안되는지,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설명하자 연구자는 "아~ 그런 의미였군요"라며 이내 수긍했다. 연구자와의 신뢰를 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신뢰와 명확함이 바탕에 있어야 연구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며 기준과 근거를 꾸준히 쌓아가죠. 동의서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할 때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쉽습니다. 그걸 짚어내고 위원회에서 보완하면 연구는 훨씬 안전하게 바뀔 수 있어요. 추상적인 윤리 원칙이 대상자 보호에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순간을 매일 확인하며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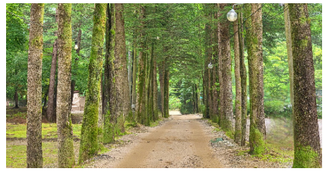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잡(job)·담(談)' 코너에서는 우리 병원 각 부서의 전문가에게서 일의 수고와 기쁨을 들어봅니다.

아산인의 여름 핫플 지도

따가운 햇볕과 후끈한 열기에 온몸이 녹아내릴 듯한 여름이 찾아왔다.
무더위의 한가운데 휴가를 어디서,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직원들의 지도 앱 속에
저장된 여름나기 장소를 소개한다. 끌리는 곳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저장하자.
매년 여름은 돌아오고 휴가는 소중하니까. 〈편집실〉

1 아버지의숲 산정캠프



경기 포천시 |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과 다슬기가 살 정도로 맑은 계곡을 따라 캠핑 사이트가 펼쳐져 한여름에도 시원하다. 편의시설도 최고!

- 진료지원팀 이가을 대리

2 탑동계곡

경기 동두천시 | 서울에서 1시간 이내 거리로 주말 나들이에 적격이다. 맑고 시원한 계곡물에서 아이들이 즐기기 좋다. 동두천 시내 맛집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기에도 최적!

- IT서비스팀 신창원 대리

3 은평한옥마을

서울 은평구 | 예쁜 한옥마을을 한적하게 거닐 수 있고 자연 친화적인 올레길이 곁들여진 힐링 장소다. 예쁜 카페 '1인 1상'에서 한옥마을 뷰와 맛있는 전통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다.

- 수술간호팀 이영찬 주임

4 크래머리

경기 가평군 | 가평의 애견 동반 가능한 바비큐 맛집! '여름에 무슨 바비큐?' 뜨거운 여름에 불판 앞은 떠올리기도 싫지만, 여긴 넓고 뻥 뚫린 실내여서 시원하게 포식할 수 있다. 바비큐 플래터 음식 구성도 다양하고, 단체로 가도 만족감이 높다.

- 데이터융합팀 이지수 주임

5 라까시나 이태리

경기 광주시 | 초보 캠퍼로서 1박 캠핑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캠크닉' 명소! 옆에는 시원한 대형 카페가 있고, 염소 먹이 주는 체험도 가능해 어른과 아이들 모두에게 만족스럽다.

- 비뇨의학과 김혜진 연구원

6 콩치노콩크리트

경기 파주시 | 높은 층고와 임진강 전망의 콘서트홀에서 클래식과 재즈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대 LP 음악감상실이다.

7 플라잉수원

경기 수원시 | 열기구를 타고 수원화성과 도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예약 필수!

8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경기 가평군 | 우거진 숲은 한여름에도 시원하다. 계곡까지 있으니 일석이조! 뚜벅이라도 잠실역에서 7002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리면 된다.

- 외래간호팀 김수미 대리

9 수승대출렁다리

경남 거창군 |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 240m 출렁다리 위를 걸으면 심장이 쿵쿵! 아찔한 스릴에 더위는 까맣게 잊을 수 있다.

- 암병원간호1팀 문다혜 대리

10 남해보물섬전망대

경남 남해군 | 유리바닥 아래로 바다가 보이는 클리프워크의 짜릿함! 전망대 옆으로 이어지는 탁트인 절경이 예술이다.

- 내과간호1팀 금주영 사원

11 옥계계곡·하옥계곡

경북 영덕군·포항시 | 두 계곡 모두 영덕과 포항에 걸쳐 있다. 투명한 물, 다양한 수심, 멋진 바위 지형. 계곡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

- 응급간호팀 우주희 대리

12 문경오미자테마터널

경북 문경시 | 천장을 수놓는 별빛 조명과 문경 특산물 오미자를 즐길 수 있다. 연중 15~18도를 유지해 시원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다.

13 남호해수욕장

경북 영덕군 | 캠핑, 차박하기 좋은 해수욕장. 사람이 너무 붐비지 않아 한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 특수검사팀 이지현 사원

14 사유원

대구 군위군 | 자연과 건축, 예술이 어우러져 걷다 보면 깊은 사색에 잠기는 감성 핫플레이스다.

15 수봉반점

대구 북구 | 중화비빔밥이 일품이다. 중화요리의 신세계를 맛보고 싶다면!

16 해녀의부엌 종달점

제주 구좌읍 | 해녀의 희로애락이 담긴 연극과 해녀가 들려주는 제주 해산물 이야기, 직접 잡은 식재료로 차린 밥상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 R&D사업팀 전민정 주임

17 가파도

제주 구좌읍 | 6~8월 해바라기 가득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날씨 좋으면 바다 너머 보이는 제주 모습도 장관이다. 3~4월엔 유채꽃, 4~5월엔 청보리밭이 유명하다.

- 암병원간호1팀 이창현 유닛 매니저

18 9.81파크 제주

제주 애월읍 | 스릴 넘치는 카트 레이싱과 실내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다. 레이싱 순위도 앱에서 확인 가능.

19 책방 소리소문

제주 한경면 |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서점 150곳'에 선정된 곳. 북큐레이션이 색다르다.

20 파라다이스스파도고

충남 아산시 | 온천 워터파크라서 그런지 피부가 좋아지는 기분이다. 2분 거리에 있는 '정다운연탄구이'에 들러 맛 좋고 가성비 좋은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 꽉 찬 하루가 된다!

-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 홍보름 과장

21 식장산 해돋이전망대

대전 동구 | 보석을 흩뿌려 놓은 것 같은 환상적인 야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는 남녀도 곧잘 볼 수 있다. 고백에 실패하면 산을 굴러 내려와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믿거나 말거나!

- 어린이병원 송나영 사원

22 카페산

충북 단양군 | 스릴 넘치는 패러글라이딩과 카페에서의 여유로운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하늘을 나는 짜릿함은 말로 표현 못 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비행이 부담스럽다면 야외 테이블에서 커피와 함께 탁 트인 풍경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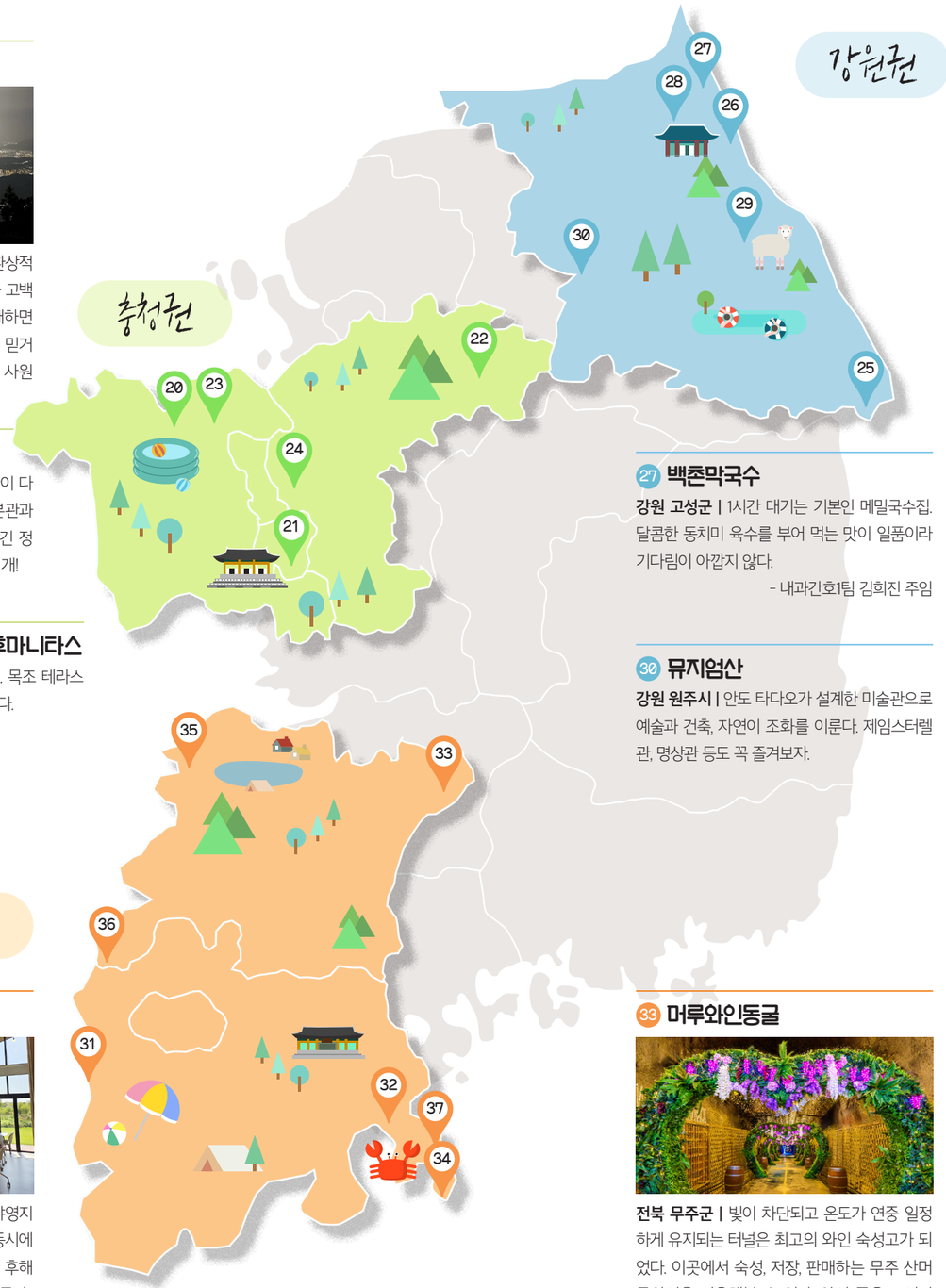
- 원무팀 김나래 주임

23 온양민속박물관

충남 아산시 | 옛 생활 문화를 보는 박물관이 다가 아니다! 긴 처마와 누마루가 인상적인 본관과 이타미준 건축가의 구정아트센터, 기품 담긴 정원과 카페온양까지 나들이 코스로 별 다섯 개!

24 인문아카이브 양림&카페 후마니타스

충북 청주시 | 웅장한 한옥의 대형 북카페. 목조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여름의 연잎밭이 꽤 운치 있다.



27 백촌막국수

강원 고성군 | 1시간 대기는 기본인 메밀국수집. 달콤한 동치미 육수를 부어 먹는 맛이 일품이라 기다림이 아깝지 않다.

- 내과간호1팀 김희진 주임

30 뮤지엄산

강원 원주시 |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미술관으로 예술과 건축,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 제임스터렐관, 명상관 등도 꼭 즐겨보자.

25 덕풍계곡

강원 삼척시 | 깎아지른 기암절벽과 노송이 병풍처럼 이어진 왕복 5km 트레킹 코스. 참나무 낙엽으로 물빛이 갈색으로 물드는 이색적인 풍경 속, 중간중간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쉬어가면 여름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힐링 명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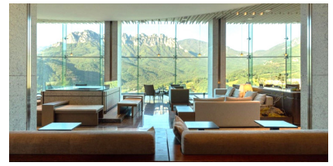
- 응급간호팀 우주희 대리

26 낙산사 템플스테이

강원 양양군 | 속세를 떠나 쉬고 싶을 때 템플스테이 만한 게 있을까. 108배 하기, 절밥 먹기, 저녁 파도 소리와 함께 명상하기, 낙산사 시설 체험으로 혼자만의 휴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 특수검사팀 이지현 사원

28 더엠브로시아



강원 고성군 | 통창 너머로 펼쳐진 웅장한 설악산 울산바위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카페로 인생샷 성지!

- 비뇨의학과 이지은 연구원

29 삼양라운드힐

강원 평창군 | 푸른 초원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곳. 해발 1,140m 동해전망대까지 버스로 올라가 탁 트인 바다를 감상하고 내려오는 길엔 보더콜리 '맥스'의 양몰이 쇼를 볼 수 있다. 시원한 맞바람을 맞으며 푸른 초원을 따라 걷는 산책은 그 자체로 힐링!

- 수술간호팀 김윤지 주임

31 짱뚱어해수욕장

전남 신안군 | 울창한 해송숲을 따라 산책하기 좋고 싸리나무와 짚으로 만든 파라솔이 설치돼 동남아의 어느 해변이 연상된다. 짱뚱어가 많고 갯벌생태전시관이 가까워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 중환자간호팀 박영란 사원

32 정원워케이션

전남 순천시 | 순천만국가정원이 나만의 야영지이자 사무실이 된다! 휴식과 업무, 숙박이 동시에 가능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후해서 '오~ 순천시가 열일하네?'라는 느낌마저 든다.

- 간호교육행정팀 최혜진 과장

33 머루와인동굴

전북 무주군 | 빛이 차단되고 온도가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터널은 최고의 와인 숙성고가 되었다. 이곳에서 숙성, 저장, 판매하는 무주 산머루와인을 시음해볼 수 있다. 와인 족욕도 인기 만점.

- 교육수련팀 조성홈 과장

34 향일암

전남 여수시 | '해를 품은 암자'라는 이름처럼 일출 명소. 절벽 끝에서 보는 바다 풍경이 예술이다.

35 은파호수공원

전북 군산시 | 군산으로 여행 가면 은파호수공원에서 노을 바라보며 산책 후 커피 한잔 필수!

36 상하농원

전북 고창군 | 상하목장 우유가 만들어지는 곳. 식사, 체험, 휴식, 숙박이 가능한 농촌문화공간으로 한 번쯤 가보시길!

37 황금게장

전남 여수시 | 게장 맛집이 정말 많은 여수. 그중에서도 '찐' 맛집이다! 손님 대다수가 어르신인 점 자체가 맛집 인증 아닐까. 간장게장이 압도적으로 맛있다!

- 내과간호1팀 금주영 사원

진심을 다해 다가가기

중환자간호팀 조미현 대리

5월 어느 날 이브닝 근무를 하던 중 병동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중환자실에 입실할 환자가 있다는 연락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환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며칠 전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올라간 환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전화로 전달받은 환자 상태는 기관 내 삽관이 되어 있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환자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로 다시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환자를 본 순간 나는 크게 놀랐다. 며칠 전 모습과 지금 상태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전신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다. 환자의 엑스레이, 혈액검사 결과를 보니 오른쪽 흉부에 혈흉이 있었다. 급히 흉관을 삽입하고 혈관조영실로 이동했다. 색전술을 받은 이후 출혈은 다행히 멎었으나 여든이 넘은 고령의 환자이기에 앞으로 남은 치료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며칠 뒤 환자는 걱정과 달리 빠르게 회복했다. 기관 내 삽관 튜브도 제거하고 의료진과 의사소통도 가능해졌다. 그런데 라운딩을 할 때마다 환자는 침대에 가만히 앉아 의료진을 바라보기만 했다. 의료진에게 별다른 이야기도, 요청도 없었다. 딸이 면회를 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원래 과묵하신 편이에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서 나도 환자에게 간단한 인사와 컨디션 정도만 물어볼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여전히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환자와 또 눈이 마주쳤다. 무료해 보이는 환자에게 다가가 "TV나 유튜브 동영상이라도 틀어드릴까요?"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환자는 말없이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대로 병실을 나왔겠지만 사흘 동안 마주친 환자의 눈빛 속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래서 그날 좀 더 용기를 내 환자에게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집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라고 물어봤다. "집에서도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라는 환자의 대답에서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 한 마디에서 그동안 우리를 바라봤던 환자의 눈빛이 이해가 됐다. 동시에 늘 컨디션만 묻고 곧장 자리를 떴던 내 모습이 떠오르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짧은 대화를 나눈 이후 환자는 나에 대한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듯했다. 환자는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했었고, 아프기 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깥 활동을 즐겼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눈웃음을 지으며 한참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나 역시도 환자에 대한 경계가 점차 허물어졌다.

얼마 후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이동했다. 그날 직접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환자가 하루빨리 퇴원해 예전처럼 활기차게 바깥 활동을 즐기며 자녀들과 함께 덜 외롭게 지내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이 환자를 간호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근무한 시간이 쌓일수록 업무적인 능력은 성장했지만 환자들의 정서도 함께 돌보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간호사로서 환자를 위해 먼저 용기를 내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는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적어 내려간 희망과 극복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K-장녀' 뒤에 숨겨진 이야기

건강의학과 안명희 조교수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는 출생 순서가 성격 형성에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한다고 본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즉 심리적 출생 순서가 삶의 방식과 대인관계, 목표 설정에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특히 맏이는 책임감이 강하고 부모의 기대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현대 심리학의 실증연구는 출생 순서가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유교문화와 산업화, 가부장제 가족 구조 속에서 이 이론의 실제적 함의가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른바 'K-장녀'로 불리는 이들은 착한 딸의 역할에 충실한데, 어려서는 동생의 돌봄 역할을, 자라서는 가족의 정서적, 경제적 버팀목이 되며 헌신과 책임을 내면화합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종종 자기 욕구의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표현하진 않지만, 내면에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은 점점 옅어집니다. 문제는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쉽게 불만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태어난 후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건강한 의존 욕구를 채워야 안정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충분치 못하면 성인이 되어도 내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과도하게 애쓰거나 반대로 부모에게 무관심한 척하며 거리를 두는 '허구의 독립(pseudo-independence)'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독립적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내면은 여전히 부모의 인정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결핍은 가족 외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진정한 자율성과 독립이 확립되지 못한 경우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 보상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잉보호나 과도한 기대, 혹은 감정적 의존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아이에게 어른스러움을 강요하거나 배우자에게 무한한 위로를 기대하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K-장녀' 밈은 많은 사람에게 "나도 그랬어"라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때론 뒤늦은 원망, 분노가 터져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감정들을 단순히 '부모 탓'으로 돌리기보다 지금 내 행동의 진정한 동기를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던 행동들이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자기만족 또는 자신의 불안을 회피하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를 재정의하려면 나도 모르게 부여된 역할에서 한발 물러나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인지, 사랑받기 위해 선택했던 생존 방식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자신만의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과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존재합니다. 깊은 신뢰가 형성된 관계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때로는 유아적인 퇴행도 허용하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부모님께 듣고 싶었던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명희 조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2017년 건강의학과에 입사해 스트레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 담당교수로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포천 이주민 한마당 행사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

진료지원팀 라선영 대리

6월 1일, 포천린넨센터에서 열린 '2025년 포천 이주민 한마당' 행사의 진행을 맡았다. 외국인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600여 명이 모인 자리였다. 작년에 사회복지팀에서 나에게 행사 진행과 우리 병원 마술 동호회에 공연을 의뢰하며 참여했고 올해가 두 번째였다. 마술 공연 봉사활동은 여러 번 무대에 선 적이 있어 큰 걱정은 되지 않았지만 진행은 달랐다. '큰 행사의 진행을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피부색은 물론 언어도 다른데 내 진행이 그들의 문화와 어울리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다. 나는 고민 끝에 요청을 수락했고 무대에 섰다. 다행히 이주민 중 영어 통역이 가능한 분이 있어 조금은 걱정을 덜고 공동 사회로 행사를 시작했다.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행사가 진행되자 그들은 나를 편하게 받아주었다. 어설픈 한국어로 즐겁다며 엄지까지 척척 치켜 올리며 즐거워했다.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등 여러 국가의 이주민들이 전통 춤과 노래를 준비했고, 다양한 장기자랑도 선보였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린 친구가 됐고 함께 즐겼다.

작년 행사에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안젤리스'라는 인도 동생을 알게 됐는데, 인연이 있는지 안젤리스의 가족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다. 그 후로 우리는 종종 저녁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가까이서 본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때론 사람들과 어울린다. 평소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이제 나에게 포천 이주민 한마당 봉사활동은 '봉사'가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 같다. 그들은 외국인 이주민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이다. 내년에는 다른 직원들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러 포천에 함께 가길 바란다.

굿바이 콩글리시

식당에서 "What's your favorite menu?"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menu'는 음식 목록을 일컫는 단어이므로 좋아하는 음식을 묻고 싶다면 "What's your favorite dish(또는 meal)?"라고 하자. 환자식을 안내할 때도 "This dish is good for your condition"이라고 하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건강에 이 음식이 좋아요

☹ This menu is good for your condition.
☺ This dish is good for your condition.

Let's Talk

A This dish is prepared for your recovery after surgery.
수술 후 회복을 돕는 식사예요.
B Is it easy on the stomach? 위에 부담이 없나요?
A Yes, this dish is good for your condition.
네, 선생님 건강에 이 음식이 좋아요.

책상 모서리나 문에 부딪히면 아픈 것은 물론이고 시퍼렇게 멍이 든다. 멍을 영어로 'black and blue mark'라고 하지는 말자. 멍은 'bruise'라는 영어 단어가 있으므로, 올바른 표현은 "I have a bruise"이다. 멍이 심할 경우 "I have a bad bruise"라고 한다.

멍 들었어요

☹ I have a black and blue mark.
☺ I have a bruise.

Let's Talk

A What happened to your arm? 팔이 왜 그래?
B I bumped into the table, and I have a bruise.
탁자에 부딪혀서 멍 들었어.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어린이병원간호팀 김근영 대리

'AMC 인사이트' 코너의 소아청소년전문과 윤지선 교수님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중증 환아들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으로 휴일에도 회진을 거르지 않는 교수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깊은 신뢰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소아 환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임상시험센터 이지혜 연구코디네이터

'아태 최고 임상분야, 심장·내분비·정형 1위' 뉴스를 보고 제 일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동료들과 환자 한 분 한 분을 마주하며 쌓아온 작은 노력이 이런 큰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니 더욱 뿌듯합니다.

수술간호팀 변수영 주임

'협업의 가치 - 원내 공사 현장의 감염 위험 낮췄어요' 글을 읽고 수시로 이뤄지는 공사마다 많은 분들의 협업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수술간호팀 김보경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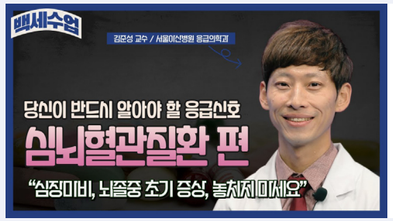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같이 일하는 신경외과 신유경 선생님의 연구 성과를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셨다니 정말 멋져요.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응원합니다!

간호교육행정팀 박경훈 주임

'마음건강노트 - 성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생각해 볼 것들' 글이 좋았습니다. 조금 더 잘해보고 싶어 남과 비교해가며 제대로 된 휴식을 주지 못했던 예전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앞으로는 나무보다 숲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NS 돋보기

[백세수업]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응급신호_심뇌혈관질환 편



출연
응급의학과
김준성 조교수

심장과 뇌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으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김준성 조교수가 심장근육이 손상되어 생기는 심근경색과 뇌세포가 손상되어 생기는 뇌졸중의 주요 원인과 응급 대처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건강플러스] 급성 발목 염좌, 꼭 수술해야 할까?

출연
정형외과
최영락 교수

급성 발목 염좌는 발목의 인대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회복됩니다. 때때로 적절한 재활 치료 후에도 반복적으로 발목 염좌가 발생하는 만성 발목관절불안정성의 경우에는 인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최영락 교수가 발목 염좌의 적절한 치료 방법과 관리법을 알려 드립니다.